

특권의식이 데이트 관계에서의 통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지배경향성과 사회비교경향성을 중심으로*

이 한 울¹⁾

박 지 선[†]

최근 들어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나, 데이트 폭력 유형 가운데 통제행동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권의식과 통제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특권의식이 통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지배경향성과 사회비교경향성의 매개효과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성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회지배경향성의 경우, 특권의식과 통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성별에 따라 매개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특권의식이 높을수록 사회지배경향성 및 사회비교경향성이 강하며, 통제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사회지배경향성 및 사회비교경향성이 강할수록 통제행동을 더 많이 하였다. 특권의식이 통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지배경향성이 완전 매개역할을 하였다. 또한, 특권의식과 통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사회비교경향성의 하위요인 중 하나인 능력비교경향성이 완전매개역할을 하였다. 더불어, 특권의식이 사회지배경향성을 매개로 통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조절되었다. 즉, 특권의식과 통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남성의 경우에는 사회지배경향성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으나, 여성의 경우에는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한계점을 논의하고 후속연구에 대해 제안하였다.


주요어 : 특권의식, 통제행동, 사회지배경향성, 사회비교경향성, 능력비교경향성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6A3A03063902).

1) 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과, 석사과정생

† 교신저자: 박지선, 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과 교수, (04310)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47길 100

E-mail: jipark@sookmyung.ac.kr

 Copyright ©2022,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2021년 8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딸의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되었다. 남자친구인 가해자는 자신의 여자친구와 다투다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했고, 피해자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한 사건의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청원이었다. 청원인인 피해자의 어머니는 데이트 폭력은 살인이라며 가해자의 신상공개를 요청했고,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강조했다. 해당 사건은 ‘마포 데이트 폭력’ 사건으로 언론에서 보도되며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해당 국민청원에 약 53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했고, 동시에 데이트 폭력의 근절을 위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매일경제, 2021.10.08.; SBS 뉴스, 2021.10.06.).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 신고·상담 건수는 2017년 14,136건에서 2021년 10월 46,687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치안정책연구소, 2021). 이처럼 데이트 폭력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가해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은 아직도 논의 중에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데이트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가해자의 행동 및 심리적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다(신지연, 최수미, 2017).

그동안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을 촉발하는 심리사회적 요인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 가운데 가정폭력 노출 경험, 거부민감성, 거부장적 성역할 태도 등이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윤진, 양승연, 박병금, 2012). 최근에는 특히 자기애가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

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Ryan, Weikel, & Sprechini, 2008). 또한, 자기애와 데이트 폭력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분노의 매개효과, 인지적 공감의 조절효과 등 다양한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시원, 박경, 2012; 원선호, 배성만, 2020). 더 나아가, 자기애의 하위 요인에 따라서도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자기애의 하위 요인 중 특권의식의 경우 데이트 상대에게 성적 강요를 하는 행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Ryan et al., 2008). 이처럼 자기애는 데이트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며,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특권의식이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과 그 관계 사이에서 또 다른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데이트 폭력에도 신체적 폭력이나 성적 폭력, 정서적 폭력, 통제행동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이러한 데이트 폭력 유형별 가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통제행동이 71.1%로 가장 높았고, 성추행이 37.9%, 정서적 폭력이 36.6%로 그 뒤를 이었다(홍영오, 2017). 이처럼 통제행동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데이트 관계에서 상대방을 향한 통제행동은 종종 그 심각성이 간과되어 폭력으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홍영오, 2017), 이에 따라 통제행동에 관한 연구도 신체적, 성적 폭력과 같은 다른 데이트 폭력 유형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데이트 상대에 대한 통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데이트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자기애 중 특권의식이 통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두 변인 간의 관계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리사회적 요인 가운데 자기에 및 공격성과 관련이 높은 사회지배경향성과 사회비교경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데이트 폭력과 통제행동

데이트 폭력(dating violence)에 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논의되지만(서장원, 2021), 기본적으로 연인 관계인 두 사람 서로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의도로 저지르는 신체적, 성적, 혹은 심리적 폭력으로 정의된다(이숙정, 권호인, 2021).

데이트 폭력의 유형은 통상적으로 신체적 폭력, 심리적 폭력, 성적 폭력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신체적 폭력은 상대방에게 고통 혹은 상해를 입히려는 의도를 갖고 힘이나 도구를 사용하는 행동을 일컫는다(Sugarman & Hotaling, 1989). 상대 밀치기, 뺨 때리기, 목 조르기 등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동이 신체적 폭력에 해당한다(Straus, Hamby, Boney-McCoy, & Sugarman, 1996). 또한 심리적 폭력은 정서적 폭력이라고도 불리는데, 모욕, 욕설, 비난 등 언어적 폭력이나 때리겠다는 위협, 물건 부수기 등의 비언어적 폭력을 통해 상대방에게 심리적으로 피해를 주는 행동을 지칭한다(Straus et al., 1996). 한편, 성적 폭력은 상대방에게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행동을 의미하며(김정란, 김경신, 1999), 상대의 동의 없이 이뤄지는 신체적 접촉에서부터 성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제압, 협박, 위협, 흥기 사용 등이 성적 폭력에 해당한다(Straus et al., 1996).

최근 데이트 폭력 유형 중 하나로 통제행동(controlling behavior)이 점차 주목받고 있다(김진숙, 문화진, 2021; 오주령, 박지선, 2019;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0). 통제행동이란 데이트 관계에서 상대의 생각, 감정, 행동 등을 관리하거나 규제하려는 행위로 정의된다(Stets, 1991).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2013)에서는 데이트 폭력을 “연인이나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성적 폭력 및 통제행동 행위”로 정의하여, 통제행동도 데이트 폭력의 유형 중 하나임을 명시하였다. 국내에서도 통제행동을 데이트 폭력 유형 중 하나로 규정하고, 상대의 옷차림이나 일정을 일일이 간섭하는 행위, 다른 사람을 못 만나게 하거나 통화를 저지하는 행위 등을 포함해 살펴본 바 있다(홍영오, 연성진, 주승희, 2015).

최근 들어 통제행동 관련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통제행동은 다른 유형의 데이트 폭력과 정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통제행동을 많이 할수록 정서적, 성적, 신체적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 또한 많이 하였으며(허수진, 김보경, 김범준, 2019; Graham-Kevan & Archer, 2008),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갈등과 공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Stets, 1992). 또한 파트너에 의한 통제행동을 보고한 여성은 심리적,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Aizpurua, Copp, Ricarte, & Vazquez, 2017).

특히, 최근에는 자기에(narcissism)와 데이트 폭력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대학생들의 자기에 성격 특성은 신체적, 심리적 데이트 폭력과 유의한 상관이 있으며(Erdem & Sahin, 2017),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을 예측하고, 가해 경

향성 감소에 역기능적 분노 수준 감소와 인지적 공감 수준 향상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원선호, 배성만, 2020). 이처럼 자기애가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심리적, 성적 폭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존재하나, 자기애와 통제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아직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기애 중 특권의식이 통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였다.

자기애와 특권의식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발간한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V;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에서 자기애란 자신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하고, 과장된 우월감을 지니며, 타인에게 특별한 대우를 바라는 특권의식 등을 가지는 성향으로 정의된다. 자기애를 측정하는 다양한 척도 중 Raskin과 Hall(1981)이 개발한 자기애성 성격질문지(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NPI)가 가장 빈번히 사용된다(Wright & Edershile, 2018). 이러한 NPI의 하위 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 Emmons(1987)는 리더십/권위성, 자기몰입/자기찬미, 우월성/거만, 착취성/특권의식의 4요인 모델을 제시하였고, Raskin과 Terry(1988)는 권위, 우월성, 허영심, 과시성, 착취성, 자기충족, 특권의식의 7요인 모델을 제시하였다. 국내에서 진행된 요인분석 연구에서는 리더십/자신감, 권력욕구/특권의식, 과시/칭찬욕구, 우월의식의 4요인이 NPI의 하위요인으로 나타났다(정남운, 2001).

특히 자기애의 하위요인 중 하나인 특권의식(psychological entitlement)은 부적응적인 측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권의식은

본인의 노력이나 성과와는 관계없이 자신이 타인보다 더 많은 것을 받고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의식이 행동에도 반영되는 것을 의미한다(Campbell, Bonacci, Shelton, Exline, & Bushman, 2004). 특권의식은 정신병질이나 신경증적 경향성과 상관이 있으며, 자존감과는 부적 상관이 있었다(이은진, 김영운, 김범준, 2010; 정남운, 2001). 또한 특권의식이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불운한 상황에서 분노를 경험하고 표출할 가능성이 더 컸다(Zitek & Jordan, 2021).

그동안 진행된 연구들을 통해 특권의식은 공격성이나 범죄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애와 공격성, 범죄 행동 사이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에서 특권의식이 공격성을 가장 잘 예측하였으며, 특권의식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에게 폭언을 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두드러졌다(Campbell et al., 2004; Reidy, Zeichner, Foster, & Martinez, 2008). 또한, 특권의식은 청소년의 비행 행위와도 상관이 높았다(Barry & Malkin, 2010).

더 나아가, 성별에 따라 특권의식과 공격성의 관계에 차이가 있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기애와 공격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남학생들은 반응적 공격성에 특권의식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임지영, 2012).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여학생 집단에서 특권의식이 공격성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길주현, 오경자, 2008).

최근 들어 공격성 가운데에서도 특히 데이트 폭력과 자기애 사이의 관계와 관련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원선호, 배성만 2020). 특히 자기애의 하위 요인 가운데 특권의식이 높을수록 신체적, 정서적, 성적 유형의 데이트 폭

력 가해 행동의 빈도가 더 높았다(이서진, 박지선, 2021; Warrener & Tasso, 2017). 이처럼 특권의식과 신체적, 정서적, 성적 데이트 폭력 사이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지만, 특권의식과 통제행동 사이의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통제행동이 데이트 폭력의 유형 중 하나로 다루어지기도 하지만(World Health Organization, 2013), 데이트 폭력을 예측하는 변인으로서 사용되기도 하는 선행 연구들과도 관련이 있다(허수진 등, 2019).

더 나아가, 자기애와 데이트 폭력 사이의 관계에서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에 관한 연구들도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역기능적 분노나 인지적 공감,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등의 요인이 자기애와 데이트 폭력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시원, 박경, 2012; 원선호, 배성만 2020; 이서진, 박지선, 2021). 이와 더불어 특히 최근 자기애 관련 연구에서, 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사회적 위계 질서와 불평등을 지지하고 선호하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Zitek & Jordan, 2016). 이처럼 자기애는 사회지배경향성과 유의한 상관이 있으며(Cichočka, Dhont, & Makwana, 2017), 특히 특권의식도 사회지배경향성과 유의한 상관이 있음이 드러났다(Adelman, Awad, Bennett, & Nguyen, 202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지배경향성이 특권의식과 통제행동 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사회지배경향성

사회지배경향성(Social Dominance Orientation)이란 개인 그 자체보다는 개인이 속한 사회

집단 간의 위계적 관계에 대한 개인의 수용 또는 거부를 예측하는 일반적 태도를 지칭한다(Pratto, Sidanius, Stallworth, & Malle, 1994). 사회지배경향성이 높을수록 자신의 집단이 타 집단보다 우월하고 지배적 위치에 있는 것을 바라는 경향이 높아, 위계 강화 이념이나 정책을 선호하고 집단의 불평등을 줄이는 사회적 관행에 반대한다(이예림, 박지선, 2022). 반면 사회지배경향성이 낮을수록 집단의 평등을 촉진하는 정책과 집단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 역할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Pratto et al., 1994).

사회지배경향성의 수준에는 성차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이 더 높은 사회지배경향성을 보인다(Sidanius, Pratto, & Bobo, 1994). 사회지배경향성은 집단 간 우위에 대해 경쟁적으로 주도된 동기에서 비롯되므로, 사회지배경향성이 높은 남성은 여성을 경쟁적 존재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있고, 이런 남성의 사회지배경향성은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상관이 있다(Sibley, Wilson, & Duckitt, 2007). 또 다른 연구에서 높은 수준의 사회지배경향성을 보이는 여성이 낮은 성인 여성보다 남성과의 거리를 더 선호한 반면, 사회지배경향성이 낮은 여성은 그렇지 않았으며, 남성의 경우에는 사회지배경향성의 차이에 따라 선호가 달라지지 않았다. 즉, 사회지배경향성이 높은 여성은 자신의 집단보다 남성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자신의 집단이 낮은 권력을 가졌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Peker, Booth, & Eke, 2018).

사회지배경향성은 편견이나 차별의 강력한 변수로 예측되어 인종차별, 성차별주의, 민족적·종교적 내집단 정체성의 집단 간 관련 태도 등과 연관이 높다(Sibley, Robertson, &

Wilson, 2006). 더불어 사회지배경향성은 낮은 공감 및 친화력(즉, 적대감)과도 관련이 있으며, 이는 소수민족이나 난민에 대한 편견적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Roy, Neumann, Jones, Gari, & Šram, 2021). 이처럼 사회지배경향성은 낮은 공감, 성차별주의와 연관성이 높는데, 이는 타인을 향한 공격성과도 연관된다(Forbes, Jobe, White, Bloesch, & Adams-Curtis, 2005). 사회지배경향성은 외부 집단에 대한 제한적 수용인 구조적 폭력과 강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Eldridge & Johnson, 2011), 테러나 집단 간 폭력에 대한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Henry, Sidanius, Levin, & Pratto, 2005).

특히 데이트 폭력 가운데 통제행동과 관련하여, 사회지배경향성은 여성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행동에 대한 인식과 관련이 있는데, 사회지배경향성이 높을수록 여성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행위를 폭력의 한 형태로 간주할 가능성이 낮았다(Rollero, Bergagna, & Tartaglia, 2021). 이처럼 여성의 행동이나 자율성을 제한하는 행위는 데이트 폭력에서의 통제행동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사회지배경향성이 데이트 관계에서 상대에 대한 통제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권 의식과 통제행동 사이의 관계에서 사회지배경향성이 미치는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더불어, 그간 사회지배경향성의 수준에 있어 성차가 지속적으로 보고되어 온 점을 바탕으로(Sidanius et al., 1994), 이러한 사회지배경향성의 효과에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고자 하였다.

앞서 살펴보았듯 사회지배경향성과 자기에 사이에 상관이 있으며(Cichocka et al., 2017), 특히 특권 의식이 사회지배경향성과 상관이 있었

다(Adelman et al., 2021).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사회비교경향성과 자기에, 공격성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들 또한 진행되어 왔다.

사회비교경향성

사회비교경향성(social comparison orientation)이란 자신의 특징을 타인과 비교하는 개인적 성향을 의미한다(Gibbons & Buunk, 1999). 인간은 자신의 능력과 의견을 평가하려는 욕구가 있고, 평가를 위해 객관적 수단을 이용할 수 없다면 타인의 능력과 의견을 자신의 것과 비교하려 한다는 사회비교 이론은(Festinger, 1954), 자기비교 동기에 대해 능력과 의견의 두 가지 차원에 집중한다. 이에 따라 사회비교경향성 척도인 INCOM(Iowa-Netherlands Comparison Orientation Measure; Gibbons & Buunk, 1999)에서도, 개인이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는 경향성을 능력(ability)과 의견(opinion)의 두 가지 하위 요인으로 측정한다. 즉, 능력비교경향성은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의견비교경향성은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느껴야 하는가”의 기본 질문으로부터 시작한다(Gibbons & Buunk, 1999).

사회비교경향성이 높은 개인은 다른 사람의 행동에 민감하다는 특성을 가진다(Gibbons & Buunk, 1999). 사회비교경향성은 한편으로 긍정적으로 동기에 영향을 미쳐, 정서불안을 회피하는 인지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적응적 측면과 관계가 있다(손선경, 2015). 그러나 사회비교경향성은 부적응적인 측면과 관련되기도 하는데, 일례로 사회비교경향성이 높을수록 우울이 높고, 주관적 안녕감이나 자기개념, 자존감은 낮은 경향을 보였다(김경미, 2016; Vogel, Rose, Okdie, Eckles, & Franz, 2015).

이러한 사회비교경향성은 공격성을 예측하는 변인이기도 하다. 즉, 사회비교경향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상태분노가 높았고(한덕웅, 장은영, 2003), 높은 수준의 상태분노는 전위된 공격성의 증가를 유의하게 설명하였다(윤정민, 이승연, 2021). 또한 사회비교경향성은 청소년들의 온라인 공격성을 예측하는 것으로 드러났다(Young, Len-Ríos, & Young, 2017).

최근 들어 사회비교경향성과 자기에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자기에는 사회비교경향성을 예측하는 변인이고, 특히 자기에 성향이 높을수록 자신과 타인을 하향 비교하며 자신이 더 우월하다고 인식하였다(Krizan & Bushman, 2011). 더불어 자기에 성향이 높을수록 사회비교에서 더 극단적 감정 반응을 보이고, 자기에의 하위 요인인 특권의식이 높은 개인은 사회비교 중 하향 비교에서 더 높은 수준의 자존감을 보고했다(Bogart, Benotsch, & Pavlovic, 2004). 또한, 자기에 성향이 높은 사람은 사회비교를 하게 되는 상황에서 타인과의 유사성보다는 차이에 더 집중하였다(Ohmann & Burgmer, 2016).

이처럼 자기에는 사회비교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며, 자기에의 하위 요인인 특권의식도 사회비교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비교경향성은 공격성과도 관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으나(Young et al., 2017), 사회비교경향성과 데이트 폭력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는 아직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비교경향성이 특권의식과 통제행동 사이의 관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종합하였을 때,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연구문제 1. 통제행동에 특권의식이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특권의식과 통제행동 사이의 관계에서 사회지배경향성의 매개효과가 있는가?

연구문제 3. 특권의식과 통제행동 사이의 관계에서 사회비교경향성의 매개효과가 있는가? 또한, 사회비교경향성의 두 하위 요인인 능력비교경향성과 의견비교경향성 각각의 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4. 성별에 따라 사회지배경향성에 차이가 있는가? 특권의식과 통제행동 사이의 관계에서 사회지배경향성이 미치는 효과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의 참여자는 이성 교제를 해 본 경험이 있는 20-30세 연령 범위의 남녀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미혼 남녀 각각 100명씩, 총 200명의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으로 조사를 시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평균 나이는 26세로, 표준편차는 2.9이었다.

측정도구

특권의식 척도

연구 참여자들의 특권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PES(Psychological Entitlement Scale; Campbell et al., 2004)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자기를 측정하는 데 가장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기존의 NPI(Raskin & Hall, 1981)에서 측정하는 하위 요인 중 하나인 특권의식

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측정하는 문항 수 자체도 적으며 안면 타당도 또한 낮다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새롭게 개발된 척도이다(Campbell et al., 2004). 총 9개 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형 척도이며, '솔직히 나는 남들보다 좋은 대접을 받아야 한다', '좋은 것들은 당연히 나의 몫이 되어야 한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82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지배경향성 척도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사회지배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Pratto 등(1994)이 개발하고 나우빈(2011)이 번안한 SDO(Social Dominance Orientation) 척도를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당신이 속한 집단이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 때로는 다른 집단에 강압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성공하기 위해서 때로는 남들을 짓밟을 필요도 있다', '열등한 집단은 나서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한다' 등 총 1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문항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에서부터 '전적으로 동의한다'(7점)까지의 7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였으며, 일부 문항을 역산하여 총점이 높을수록 사회지배경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88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사회비교경향성 척도

연구 참여자들의 사회비교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Gibbons와 Buunk(1999)가 개발하고 최윤희(2003)가 번안한 INCOM(Iowa-Netherlands Comparison Orientation Measure)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두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

는데, 개인이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는 경향성을 능력비교경향성 6문항, 의견비교경향성 5문항의 총 11개 문항으로 측정한다. 능력비교경향성의 경우 '나는 종종 사랑하는 이들(애인, 가족 등)의 행동과 타인의 행동을 비교한다', '나는 항상 나의 행동을 타인의 행동과 비교하는 것을 좋아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견비교경향성은 '나는 종종 누군가 나와 비슷한 문제에 직면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지곤 한다', '나는 항상 나와 상황(입장)이 비슷한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알고 싶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이며, 일부 역산한 문항을 포함하여 총점이 높을수록 사회비교경향성이 높다는 것을 가리킨다. 본 연구에서 사회비교경향성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28이었으며, 하위 요인 중 능력비교경향성의 내적 합치도는 .829, 의견비교경향성의 내적 합치도는 .679로 나타났다.

통제행동

본 연구에서의 통제행동은 홍영오 등(2015)이 두 사람 간의 데이트 관계에서 파트너에 대한 통제행동을 조사하는데 사용한 문항을 바탕으로 측정하였다. 해당 척도는 '상대방이 하는 일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만두게 한 적이 있다', '상대방의 옷차림을 제한했다', '상대방의 일정을 통제하고 간섭했다' 등 총 11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각각의 문항에 대해 '전혀 없다'(1점)에서부터 '매우 자주 있다'(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며, 총점이 높을수록 상대방에게 통제행동을 더 많이 하였다는 것을 가리킨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49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분석 절차

본 연구에서는 SPSS 26.0과 PROCESS macro 4.0(Hayes, 2017)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자료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우선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각각의 척도에 대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의 기술통계와 함께 Pearson 상관분석을 진행하였다. 셋째, 특권의식과 통제행동 사이의 관계에서 사회지배경향성의 매개효과가 있는지 탐색하고자 PROCESS macro model 4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특권의식과 통제행동 사이의 관계에서 사회비교경향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역시 PROCESS macro

model 4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사회비교경향성의 두 하위 요인인 능력비교경향성과 의견비교경향성 각각의 매개효과 분석 또한 실시하였다. 넷째, 특권의식과 통제행동 사이의 관계에서 사회지배경향성이 미치는 효과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려 PROCESS macro model 7을 이용해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우선 본 연구에 포함된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성별, 연령, 교제 기간), 특권의식, 사회지배경향성과 사회비교경향성(능력비교경향성, 의견비교경향성), 통제행동 등의

표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 | 1 | 2 | 3 | 4 | 5 | 6 | 6-1 | 6-2 | 7 |
|--------------|---------|--------|-------|--------|--------|--------|--------|-------|------|
| 1. 성별 | 1 | | | | | | | | |
| 2. 연령 | -.076 | 1 | | | | | | | |
| 3. 교제기간 | .050 | .265** | 1 | | | | | | |
| 4. 특권의식 | -.122 | .059 | -.027 | 1 | | | | | |
| 5. 사회지배경향성 | -.356** | .058 | -.046 | .368** | 1 | | | | |
| 6. 사회비교경향성 | .079 | -.092 | .052 | .287** | .078 | 1 | | | |
| 6-1. 능력비교경향성 | .031 | -.064 | .048 | .318** | .139* | .912** | 1 | | |
| 6-2. 의견비교경향성 | .124 | -.104 | .041 | .143* | -.040 | .791** | .471** | 1 | |
| 7. 통제행동 | -.081 | .050 | .088 | .151* | .199** | .147* | .245** | -.050 | 1 |
| 평균 | 1.50 | 26.03 | 26.69 | 4.20 | 3.40 | 3.33 | 3.08 | 3.62 | 1.54 |
| 표준편차 | .50 | 2.85 | 23.13 | 1.00 | .98 | .65 | .83 | .66 | .81 |

* $p < .05$, ** $p < .01$

성별: 남성 = 0, 여성 = 1; 교제기간: 개월 단위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와 함께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우선, 성별은 사회지배경향성과 부적 상관이 있었고, 나머지 변인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즉, 남성이 여성보다 사회지배경향성이 더 높았다. 연령은 교제기간과 정적 상관을 보였고, 이 외 나머지 변인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특권의식은 사회지배경향성, 사회비교경향성, 능력비교경향성, 의견비교경향성, 통제행동 각각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즉, 특권의식이 높을수록 사회지배경향성, 사회비교경향성, 능력비교경향성, 의견비교경향성 경향이 강하며, 통제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사회지배경향성은 사회비교경향성의 하위요인 중 능력비교경향성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사회비교경향성 및 의견비교경향성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

았다. 즉, 사회지배경향성이 높을수록 자신과 타인의 능력을 비교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통제행동은 사회지배경향성, 사회비교경향성, 능력비교경향성 각각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특권의식과 통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사회지배경향성의 매개효과

특권의식과 통제행동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사회지배경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PROCESS macro 4.0 버전의 model 4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Hayes, 2017). 이후 모든 매개효과 분석 시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요인(성별, 연령, 교제 기간)은 통제 변인으로 설정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 분석 결과, 특권의식과 통제행동 사이의 관계에서 사회지배경향성의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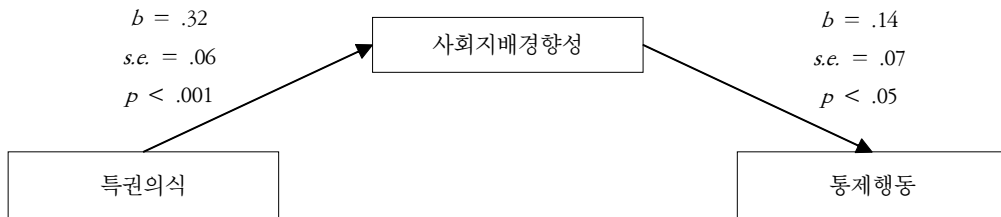


그림 1. 특권의식과 통제행동 간 사회지배경향성의 매개모형

표 2. 특권의식과 통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사회지배경향성의 매개효과

| 경로 | <i>b</i> | <i>SE</i> | LLCI | ULCI |
|-------------------------------|----------|-----------|--------|-------|
| 총효과 특권의식 → 통제행동 | .1174 | .0575 | .0040 | .2309 |
| 직접효과 특권의식 → 통제행동 | .0740 | .0608 | -.0459 | .1940 |
| 간접효과 특권의식 → 사회지배경향성 → 통제행동 | .0434 | .0192 | .0096 | .0854 |

가 유의함이 드러났다(그림 1 참조). 우선 독립변인인 특권의식이 종속변인인 통제행동에 미치는 총효과가 유의했다(표 2 참조). 또한 특권의식이 사회지배경향성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하였으며($b = .32, s.e. = .06, p < .001$), 사회지배경향성이 통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하였다($b = .14, s.e. = .07, p < .05$). 이때 특권의식과 통제행동 사이에 사회지배경향성을 투입하여 간접효과를 검증하였을 때,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회지배경향성이 특권의식과 통제행동 사이에서 완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권의식과 통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사회비교경향성의 매개효과

이번에는 특권의식과 통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사회비교경향성의 역할을 탐색하고자 역시 PROCESS macro 4.0 버전의 model 4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매개효과 분석 시 사회비교경향성의 전체 척도와 함께, 그 하위 요인의 매개효과를 각각 나누어 분석하였다.

매개효과 분석 결과, 특권의식과 통제행동 사이의 관계에서 능력비교경향성의 매개효과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비교경향

성 및 의견비교경향성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그림 2 참조).

먼저 특권의식과 통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사회비교경향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특권의식이 사회비교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였지만($b = .20, s.e. = .04, p < .001$), 사회비교경향성이 통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b = .15, s.e. = .09, n.s.$).

다음으로 특권의식과 통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사회비교경향성의 하위요인 중 하나인 능력비교경향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았다(표 3, 그림 2 참조). 그 결과, 특권의식이 통제행동에 미치는 총효과는 유의했으며, 특권의식이 매개변인인 능력비교경향성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하였다($b = .27, s.e. = .06, p < .001$). 능력비교경향성이 통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하였다($b = .22, s.e. = .07, p < .01$). 이때 특권의식과 통제행동 사이에 능력비교경향성을 투입하여 간접효과를 검증하였을 때,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능력비교경향성이 특권의식과 통제행동 사이에서 완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특권의식과 통제행동 사이에서 사회비교경향성의 다른 하위 요인인 의견비교경향성의 매개효과 분석의 경우, 의견비교경향성

표 3. 특권의식과 통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능력비교경향성의 매개효과

| 경로 | <i>b</i> | <i>SE</i> | LLCI | ULCI |
|-----------------------|----------|-----------|--------|-------|
| 총효과 | | | | |
| 특권의식 → 통제행동 | .1174 | .0575 | .0040 | .2309 |
| 직접효과 | | | | |
| 특권의식 → 통제행동 | .0569 | .0597 | -.0609 | .1747 |
| 간접효과 | | | | |
| 특권의식 → 능력비교경향성 → 통제행동 | .0605 | .0211 | .0259 | .108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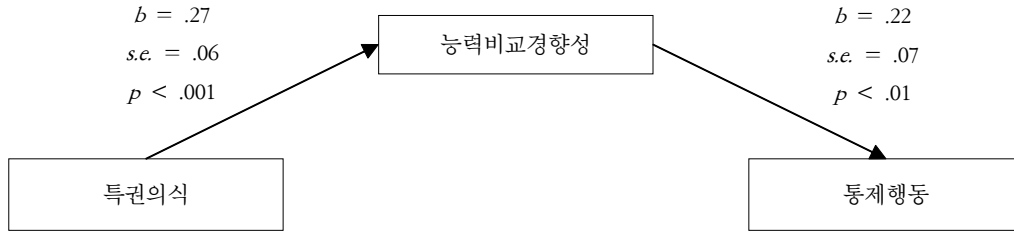


그림 2. 특권의식과 통제행동 간 능력비교경향성의 매개모형

과 통제행동 간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표 1 참조),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

특권의식, 사회지배경향성 및 통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된 매개효과

앞서 성별과 사회지배경향성 사이에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남성이 여성보다 사회지배경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유의한 성차가 존재하였다. 이에, 특권의식, 사회지배경향성 및 통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성별에 따라 조절된 매개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4.0 버전의 model 7을 이용하였다.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결과(표 4, 그림 3 참조), 특권의식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는 사회지배경향성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며($b = -.38, s.e. = .12, p < .01$), 사회지배경향성은 통제행동에 유의한 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b = .14, s.e. = .06, p < .05$). 이때 조절된 매개지수의 통계적 유의성에 대한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랩을 실시한 결과, 95% 신뢰구간 내에 0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조절된 매

표 4. 통제행동, 사회지배경향성 및 특권의식 간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된 매개효과

| 모형 1 | 종속변인: 사회지배경향성 | | | | |
|-----------|---------------|-----------|-----------|---------|--------|
| | <i>b</i> | <i>SE</i> | <i>t</i> | LLCI | ULCI |
| (상수) | .2489 | 1.0410 | .2390 | -1.8043 | 2.3020 |
| 특권의식 | .8762 | .1874 | 4.6758*** | .5066 | 1.2459 |
| 성별 | .9889 | .5225 | 1.8926 | -.0416 | 2.0194 |
| 특권의식 X 성별 | -.3804 | .1210 | -3.1436** | -.6190 | -.1417 |
| 모형 2 | 종속변인: 통제행동 | | | | |
| | <i>b</i> | <i>SE</i> | <i>t</i> | LLCI | ULCI |
| (상수) | .5810 | .5718 | 1.0160 | -.5468 | 1.7087 |
| 특권의식 | .0739 | .0607 | 1.2172 | -.0458 | .1935 |
| 사회지배경향성 | .1411 | .0625 | 2.2579* | .0179 | .2643 |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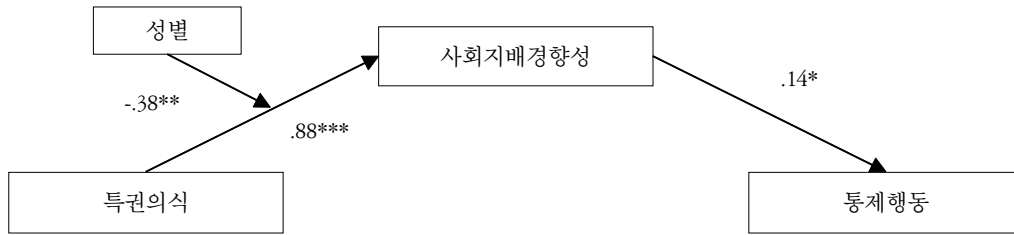


그림 3. 특권의식과 통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성별에 의한 사회지배경향성의 조절된 매개모형

표 5. 성별의 조절된 매개지수

| 조절된 매개지수 | SE | 95% 신뢰구간 | |
|----------|-------|----------|--------|
| | | LLCI | ULCI |
| -0.0537 | .0289 | -.1210 | -.0089 |

개효과가 유의하였다(표 5 참조). 이는 사회지배경향성을 매개로 특권의식과 통제행동 사이의 관계가 성별에 따라 조절된다는 것을 가리킨다.

조절된 매개효과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성별에 따른 조건부 간접효과를 조사하였다(표 6 참조). 그 결과, 남성의 경우에는 95% 신뢰구간 내에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유의한 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b = .07, s.e. = .03$).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95% 신뢰구간 내에 0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즉, 특권의식과 통제행동 사이의 관계에서 남성의 경우에는 사회지배경향성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사회지배경

향성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자기에 하위요인 중 특권의식과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통제행동 간 관계를 조사하고, 이를 사회지배경향성과 사회비교경향성이 매개하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사회지배경향성 수준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특권의식과 통제행동 간 관계에서 사회지배경향성의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우선 그간 특권의식과 신체적, 심리적, 성적

표 6. 성별에 따른 조건부 간접효과

| 변인 | | b | SE | 95% 신뢰구간 | |
|----|----|-------|-------|----------|-------|
| | | | | LLCI | ULCI |
| 성별 | 남성 | .0700 | .0291 | .0205 | .1343 |
| | 여성 | .0163 | .0164 | -.0127 | .0533 |

데이트 폭력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진행된 바 있으나, 특권의식과 통제행동 간의 관계를 밝힌 연구가 아직 부족한 실정에서 본 연구 결과 특권의식이 높을수록 통제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자기애의 하위 요인 중 부적응적인 측면이나 공격성과 관련이 높다고 알려진 특권의식(이은진 등, 2010; Reidy et al., 2008) 데이트 폭력 가해자에 있어서도 중요한 심리적 요인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Ryan et al., 2008; Warrenner & Tasso., 2017). 또한, 본 연구에서 특권의식이 높을수록 사회지배경향성 및 사회비교경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 관련 선행 연구와 일맥상통하는 결과를 보였다(Adelman et al., 2021; Bogart et al., 2004). 더불어, 본 연구 변인들 가운데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일하게 사회지배경향성 수준에서만 나타났으며, 나머지 변인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여성보다 남성에게 있어 사회지배경향성이 더 높았는데, 이는 사회지배경향성 관련 선행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Sidanius et al., 1994).

그간 사회지배경향성이 타인을 향한 공격성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연구들은 다수 존재하나(Eldridge & Johnson., 2011; Henry et al., 2005), 사회지배경향성이 데이트 폭력 중에서도 통제행동과 연관이 있는지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매우 어려웠다. 본 연구 결과 사회지배경향성이 통제행동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므로, 향후 데이트 폭력 발생에 있어 위계와 권력, 지배에 대한 선호를 보이며 차별을 예측하는 사회지배경향성이 미치는 효과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을 시사한다. 특히, 통제행동 외에 데이트 폭력의 다른 유형인 신체적, 성적, 심리적 폭

력 각각에 있어서도 사회지배경향성의 효과가 드러나는지를 향후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그간 사회비교경향성의 경우 공격성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알려져 왔으나(윤정민, 이승연, 2021; Young et al., 2017), 사회비교경향성과 데이트 폭력 간 관계를 탐구한 연구는 드물었으며, 특히 통제행동과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는 찾기 힘든 실정이었다. 본 연구 결과 사회비교경향성이 통제행동과 관련이 있었으며, 특히 그 하위 요인인 능력 비교 경향성이 통제행동과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사회비교경향성이 높을수록 자존감이 낮고 타인의 행동에 민감하다는 선행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Gibbons & Bunnk., 1999; Vogel et al., 2015), 향후에 사회비교경향성과 데이트 폭력과의 연관성에 대해 다시 심층적 검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연구 결과 특권의식이 통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지배경향성이 완전 매개 역할을 하였다. 더불어, 특권의식이 사회지배경향성을 매개로 통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조절되었다. 즉, 남성은 특권의식이 높을수록 사회지배경향성이 높으며, 사회지배경향성이 높을수록 상대에 대한 통제행동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았으나, 여성의 경우 그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그간 관련 선행 연구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사회지배경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성차가 보고된 바 있다(Sidanius et al., 1994). 본 연구에서는 자기애와 데이트 폭력 사이의 관계에서 사회지배경향성의 매개효과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사회지배경향성에 미치는 성별의 영향을 한층 더 확장하여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특권의식이 통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능력비교경향성이 완전 매개 역할을 하였다. 즉, 특권의식이 높을수록 능력비교경향성이 높으며, 능력비교경향성이 높을수록 상대에 대한 통제행동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이는 사회비교경향성 중에서도 의견보다는 능력에 대한 비교가 통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데 관련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 결과는 향후 자기애나 데이트 폭력 관련 연구에서도 사회비교경향성의 하위 요인들을 구분하여 그 관계를 살펴야 할 필요성을 드러낸다. 특히 의견비교경향성은 통제행동과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에 특권의식과 통제행동 간의 매개효과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의견비교경향성이 통제행동 외에 다른 유형의 데이트 폭력과는 상관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으므로, 결과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주의를 요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회비교경향성의 하위 요인 중 의견비교경향성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679로, 사회비교경향성 전체 척도 .828, 능력비교경향성 척도 .829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추가 분석 결과, 의견비교경향성 문항 중 '나는 절대 나의 상황을 남들과 비교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문항이 삭제된 경우, 내적 합치도(Cronbach's α)가 .716으로 증가하였다. 해당 문항은 역코딩하여 합산하는 문항으로, 연구 참여자들이 질문을 혼동하여 응답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했을 가능성 등의 다양한 이유로 비교적 낮은 내적 합치도가 나타난 것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후속 연구에서 사회비교경향성을 살펴볼 때 해당 척도를 사용하면, 일부 문항의 수정 등을 고려하여 재

검증을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연구 참여자의 연령과 관련하여,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이라는 연구 주제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참여자의 연령 범위에 있어 20-30세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데이트 폭력은 10대나 3-40대, 혹은 그 이상의 연령대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홍영오 등, 2015). 따라서, 향후에는 여러 연령대에 걸쳐 특권의식과 통제행동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사회지배경향성과 사회비교경향성이 특권의식과 통제행동 사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만약 연령대별 차이가 나타난다면, 데이트 폭력 가해자의 연령에 따라 특권의식이나 사회지배경향성 등 심리사회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등 데이트 폭력 예방이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차별적 대응전략을 세우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으로 진행되어 사회적 바람직성 등의 요인으로 인해 응답이 왜곡되거나 축소되었을 수 있다. 향후 데이트 관계에 있는 두 사람에게 상대방과 자신의 통제행동 정도에 대해 각기 모두 응답하도록 한 후, 이를 비교해보고 응답에 차이가 나는지, 만약 차이가 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특권의식이나 사회지배경향성, 특히 사회비교경향성 등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특권의식과 데이트 폭력의 하위 요인인 통제행동에 대한 사회지배경향성과 사회비교경향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향후에는 이런 매개변인들이 특권의식과 다른 유형의 범죄행위 사이의 관계에

도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를 확장할 수 있다. 특히, 가정폭력에 있어서도 위계와 지배를 중요시하는 사회지배경향성의 영향이 나타나는지, 또한 낮은 자존감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사회비교경향성과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 중인 스토킹 범죄 관련, 특권의식이 스토킹 행위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둘의 관계에서 사회지배경향성 혹은 사회비교경향성이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주현, 오경자 (2008). 자기에의 세부특성과 자기개념 명확성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7(4), 911-924.
- 김경미 (2016). 사회비교경향성과 주관적 안녕감 및 우울의 관계: 자기통제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23(10), 235-257.
- 김시원, 박 경 (2012).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애와 데이트폭력 가해와의 관계: 역기능적 분노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9(10), 121-141.
- 김정란, 김경신 (1999). 대학생의 이성교제 중 폭력과 대처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7(8), 73-90.
- 김진숙, 문화진 (2021). 성인 남녀의 통제 행동이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 공감과 젠더 감수성의 매개효과. 인문사회 21, 12(3), 727-741.
- 나우빈 (2011). 우익권위주의, 사회지배 지향성 및 접촉이 비행청소년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방영덕 (2021.10.08.). '마포 데이트폭력' 국민청원에 청와대 답했다...“엄중 처벌하겠다”. 매일경제. Retrieved from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10/958095/>
- 서장원 (2021). 개정판 데이트 폭력 질문지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6(1), 109-123.
- 손선경 (2015). 부모의 형제비교행위가 정서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부적응 완벽주의와 사회비교경향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3), 665-683.
- 신정은 (2021.10.06.). '마포 데이트폭력'. 결국상해치사 기소...故 황예진 씨 부모 “참담”. SBS 뉴스. Retrieved from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488307
- 신지연, 최수미 (2017). 거부민감성, 비대칭 패러다임이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2(4), 533-549.
- 오주령, 박지선 (2019). 성별 및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데이트 폭력에 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법, 10(1), 47-65.
- 원선호, 배성만 (2020).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 역기능적 분노의 매개역할과 인지적 공감의 매개된 조절효과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5(3), 549-567.
- 윤정민, 이승연 (2021). 20, 30대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경험과 전위된 공격성 간의 관계: 지각된 조직불공정성과 상태분노의 이중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7(1), 1-18.

- 윤진, 양승연, 박병금 (2012). 가정폭력경험, 가부장적 성역할 태도, 열등감이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허용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9(6), 79-107.
- 이서진, 박지선 (2021).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특권의식의 영향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21(4), 57-83.
- 이숙정, 권호인 (2021). 남녀의 가해동기와 폭력 정당화가 데이트 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 자기-상대방 상호의존성 모델(APIM)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7(4), 391-410.
- 이예림, 박지선 (2022). 피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른 아동학대 사건 판단. *형사정책연구*, 33(2), 101-125.
- 이은진, 김영운, 김범준 (2010). 대학생의 자기애 성향이 정신병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3), 447-468.
- 임지영 (2012). 공격성 위험집단 청소년의 외현적, 내현적 자기애와 주도적, 반응적 공격성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9(12), 1-29.
- 정남운 (2001). 자기애적 성격검사의 요인구조와 아이젠크 성격차원 및 자존감과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2), 221-237.
- 최윤희 (2003). 스트레스, 통제소재 및 사회비교 경향성이 우울 정도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치안정책연구소 (2021). 치안전망 2022. https://www.psi.go.kr/police/board/view.do?bbsId=BBSMSTR_000000000159&menuNo=116001000000&nttId=158752
- 한덕웅, 장은영 (2003). 사회비교가 분노경험, 주관안녕 및 건강지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1), 85-112.
- 허수진, 김보경, 김범준 (2019). 성인의 불안에 차이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통제행동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법*, 10(3), 195-214.
- 홍영오 (2017). 성인의 데이트폭력 가해요인. *형사정책연구*, 28(2), 321-353.
- 홍영오, 연성진, 주승희 (2015).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연구: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491.
- Adelman, A. L., Awad, G. H., Bennett, A., & Nguyen, H. (2021). The role of entitlement,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nd right-wing authoritarianism in the prediction of homonegativity for heterosexual white men. *Analyses of Social Issues and Public Policy*, 21(1), 784-805.
- Aizpurua, E., Copp, J., Ricarte, J. J., & Vázquez, D. (2017). Controlling behaviors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among women in Spain: An examination of individual, partner, and relationship risk factors for physical and psychological abus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2(1-2), 231-254.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V* (Vol. 10).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Barry, C. T., & Malkin M. L. (2010). The relation between adolescent narcissism and internalizing problems depends on the conceptualization of narcissism.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4(6), 684-690.

- Bogart, L. M., Benotsch, E. G., & Pavlovic, J. D. P. (2004). Feeling Superior but Threatened: The Relation of Narcissism to Social Comparison.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28*(1), 35-44.
- Campbell, W. K., Bonacci, A. M., Shelton, J., Exline, J. J., & Bushman, B. J. (2004). Psychological Entitlement: Interpersonal Consequences and Validation of a Self-Report Measur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83*(1), 29-45.
- Cichocka, A., Dhont, K. & Makwana, A. P. (2017). On Self-Love and Outgroup Hate: Opposite Effects of Narcissism on Prejudice via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nd Right-Wing Authoritarianism.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31*(4), 366-384.
- Eldridge, J., & Johnson, P.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Old-Fashioned and Modern Heterosexism to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nd Structural Violence. *Journal of Homosexuality, 58*(3), 382-401.
- Emmons, R. A. (1987). Narcissism: Theory and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1), 11-17.
- Erdem, A., & Sahin, R. (2017). Undergraduates' attitudes toward dating violence: Its relationship with sexism and narcissism. *International Journal of Higher Education, 6*(6), 91-105.
- Festinger, L. A. (1954). A theory of social comparison process. *Human Relations, 7*(2), 117-140.
- Forbes, G. B., Jobe, R. L., White, K. B., Bloesch, E., & Adams-Curtis, L. E. (2005). Perceptions of Dating Violence Following a Sexual or Nonsexual Betrayal of Trust: Effects of Gender, Sexism, Acceptance of Rape Myths, and Vengeance Motivation. *Sex Roles, 52*(3-4), 165-173.
- Gibbons, F. X., & Buunk, B. P. (1999). Individual differences in social comparison: Development of a scale of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1), 129-142.
- Graham-kevan, N., & Archer, J. (2008). Does Controlling Behavior Predict Physical Aggression and Violence to Partners?. *Journal of Family Violence, 23*(7), 539-548.
- Hayes, A. F. (2017).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Guilford publications.
- Henry, P. J., Sidanius, J., Levin, S., & Pratto, F. (2005).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uthoritarianism, and Support for Intergroup Violence Between the Middle East and America. *Political Psychology, 26*(4), 569-584.
- Krizan, Z., & Bushman, B. J. (2011). Better than my loved ones: Social comparison tendencies among narcissis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0*(2), 212-216.
- Ohmann, K., & Burgmer, P. (2016). Nothing compares to me: How narcissism shapes comparative think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98*, 162-170.
- Peker, M., Booth, R. W., & Eke, A. (2018). Relationships among self-construal, gender,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nd interpersonal distance.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48*(9), 494-505.

- Pratto, F., Sidanius, J., Stallworth, L. M., & Malle, B. F. (1994).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 Personality Variable Predicting Social and Political Attitud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4), 741-763.
- Raskin, R., & Hall, C. S. (1981).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lternate form reliability and further evidence of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5*(2), 159-162.
- Raskin, R., & Terry, H. (1988). A principal-components analysis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nd further evidence of its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5), 890-902.
- Reidy, D. E., Zeichner, A., Foster, J. D., & Martinez, M. A. (2008). Effects of narcissistic entitlement and exploitativeness on human physical aggress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4*(4), 865-875.
- Rollero, C., Bergagna, E., & Tartaglia, S. (2021). What is Violence? The Role of Sexism and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in Recognizing Violence Against Wome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6*(21-22), NP11349-NP11366.
- Roy, S., Neumann, C. S., Jones, D. N., Gari, A., & Šram, Z. (2021). Psychopathic propensities contribute to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nd right-wing authoritarianism in predicting prejudicial attitudes in a large European samp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68*(1), 110355.
- Ryan, K. M., Weikel, K., & Sprechini, G. (2008). Gender Differences in Narcissism and Courtship Violence in Dating Couples. *Sex Roles, 58*(11-12), 802-813.
- Sibley, C. G., Robertson, A., & Wilson, M. S. (2006).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nd Right-Wing Authoritarianism: Additive and Interactive Effects. *Political Psychology, 27*(5), 755-768.
- Sibley, C. G., Wilson, M. S., & Duckitt, J. (2007). Antecedents of Men's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The Dual Roles of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nd Right-Wing Authoritarianism.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3*(2), 160-172.
- Sidanius, J., Pratto, F., & Bobo, L. (1994).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nd the political psychology of gender: A case of invari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6), 998-1011.
- Stets, J. E. (1991). Psychological aggression in dating relationships: The role of interpersonal control. *Journal of Family Violence, 6*(1), 97-114.
- Stets, J. E. (1992). Interactive process in dating aggression: A national stud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4*(1), 165-177.
- Straus, M. A., Hamby, S. L., Boney-McCoy, S., & Sugarman, D. B. (1996).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 (CTS2) development and preliminary psychometric data. *Journal of family issues, 17*(3), 283-316.
- Sugarman, D. B., & Hotaling, G. T. (1989). Dating violence: Prevalence, context, and risk markers.
- Vogel, E. A., Rose, J. P., Okdie, B. M., Eckles, K., & Franz, B. (2015). Who compares and despairs? The effect of social comparison

- orientation on social media use and its outcom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86, 249-256.
- Warrener, C. D., & Tasso, A. (2017). An Empirical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Dating Abuse and Entitlement Within a College Population. *Partner Abuse*, 8(4), 377-394.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0). *Preventing intimate partner and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Taking action and generating evidence*. World Health Organization.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3). *Responding to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WHO clinical and policy guidelines*. World Health Organization.
- Wright, A. G., & Edershile, E. A. (2018). Issues resolved and unresolved in pathological narcissism. *Current Opinion in Psychology*, 21, 74-79.
- Young, R., Len-Ríos, M., & Young, H. (2017). Romantic motivations for social media use, social comparison, and online aggression among adolescent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75, 385-395.
- Zitek, E. M., & Jordan, A. H. (2016). Narcissism Predicts Support for Hierarchy (At Least When Narcissists Think They Can Rise to the Top).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7(7), 707-716.
- Zitek, E. M., & Jordan, A. H. (2021). Individuals higher in psychological entitlement respond to bad luck with ange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68(1), 110306.

논문 투고일 : 2022. 07. 22
1 차 심사일 : 2022. 08. 04
게재 확정일 : 2022. 09. 22

The Effect of Psychological Entitlement on Controlling behavior in dating relationships: Focusing on the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nd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Hanol Lee

Jisun Park

Department of Social Psychology, Sookmyung Women's University

Recently, dating violence has emerged as a serious social problem, but there is not enough research on controlling behavior among the subtypes of dating violence. This study explored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entitlement and controlling behavior, and the mediation effect of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nd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Furthermore, the study examined if the mediation effect of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between psychological entitlement and controlling behavior differed by gender. As a result, the higher the level of psychological entitlement, the stronger the level of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and the controlling behavior. In addition, the stronger the level of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nd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the more frequently was the occurrence of the controlling behavior committed. The level of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entitlement and controlling behavior. The level of ability comparison orientation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entitlement and controlling behavior. The mediation effect of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between psychological entitlement and controlling behavior was moderated by gender. In other words, the mediation effect of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between psychological entitlement and controlling behavior was significant for the male, but not for the female.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psychological entitlement, controlling behavior,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ability comparison orientation*